

시그니엘 부산, 프리포즈 패키지 '이터널 프로미즈' 출시

시그니엘 부산이 프리포즈 패키지 '이터널 프로미즈'를 출시했다. 베이직형은 시그니엘 프리미어룸 또는 프리미어 스위트룸 중 선택할 수 있고, 웰컴 어메니티, 프리포즈 데코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한다. 스페셜형은 프레지덴셜 스위트룸과 프리포즈 데코레이션에 3종의 룸 콧 장식을 추가했다. 시그니엘 부산의 파인 다이닝을 객실에서 즐기는 인클루시브 서비스 특전도 있다.



트리셀, 샴푸 이어 헤어에센스로 도약 노린다

“푸석한 모발에 극강의 부드러움 선사”

엘엔피코스메틱의 라이프스타일 뷰티 브랜드 트리셀이 두 번째 제품으로 헤어에센스를 선보이며, 안정적인 시장 안착에 나섰다. 두 번째 제품은 푸석한 모발을 부드럽고 윤기있게 케어해주는 '리커버리 오일 에센스'다. 첫 제품인 '데이&나이트 콜라겐 샴푸'가 큰 인기를 얻은 터라 후속 제품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두번째 제품 '리커버리 오일 에센스' 천연 오일로 끈적임 없이 산뜻하게 설문조사서 사용감 만족도 100% 인체적용시험 통해 피부안전성 검증 샴푸 제품, 아침·저녁 차별화로 인기

● '리커버리 오일 에센스' 선보여

트리셀(treece ll)은 나무(tree)와 세포(cell)의 합성어로, 자연의 다양한 원료들을 세포 과학과 결합시켜 소비자에게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브랜드 지향성을 담고 있다. 마스크팩 중심의 글로벌 뷰티 브랜드 메디힐로 잘 알려진 엘엔피코스메틱이 헤어케어 시장에 진출하며 선보인 브랜드로 더욱 주목받고 있다. 기능성 헤어케어를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규정하고, 메디힐의 마스크팩 신화에 버금가는 브랜드로 키운다는 전략이다.

트리셀의 두 번째 제품인 '리커버리 오일 에센스'는 제품 본연의 기능에 충실했다. 호호바 오일과 블렌딩한 천연 오일의 조합으로 푸석한 모발을 부드럽고 윤기있게 케어해 준다. 가볍고 산뜻한 제형으로 손상된 모발에 영양감과 수분을 부여해 끈적임 없이 매끄럽고 생기 넘치는 머릿결 연출을 돕는다.

이를 검증하기 위한 시장조사에도 적극적이다. 제품 사용 만족도 설문 조사에서 모발 손상과 모발 끝 갈라짐 개선 등 전반적인 사용감 만족도 100%를 확보했으며, 제품 사용 직후 모발 영킹 129% 개선 효과와 모발 부드러움 144% 개선 효과도 인정받았다.

또 두피일차자극시험, 인체일차자극 시험, 민감성인체적용시험 등의 인체적용시험을 실시해 피부 안전성을 검증받았다. 피부 자극 없이 모발 관리가 가능해 보다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저자극 손상 케어를 위한 인체적용시험을 완료해 일상 속 드라이기 사용 및 염색 및 자외선 등에 의한 모발 손상 케어에도 도움을 준다.

샴푸 선택 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향기를 위해 프랑스 명문 향료 전문 기관인 ISIPCA와 협업했다. ISIPCA 최상위 마스터 클래스 향 전문가의 섬세한 조향으로 트리셀만의 분위기를 담은 향기로운 에센스를 선보인다. 마린브릿지향이 대표적으로, 시원하고 표근한 향기가 도시적이고 세련된 분위기를 표현한다.

회사 측은 “젖은 모발에 사용 시 마른



엘엔피코스메틱의 라이프스타일 뷰티 브랜드 트리셀이 두 번째 제품인 '리커버리 오일 에센스'를 선보이며 시장 안착에 나섰다. 트리셀 제품을 소개하고 있는 모델 김수진. 사진제공 | 트리셀

모발에 사용할 때보다 2배 더 발라주면 열기구에 의한 모발 손상을 효과적으로 방지해 준다”며 “리커버리 오일 에센스와 함께 자주 만지고 싶은 머릿결, 오래 간직하고 싶은 머릿결을 경험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 기능성 헤어케어 시장 공략이 주요

지난해 10월 5일 론칭한 트리셀은 첫 제품 '데이&나이트 콜라겐 샴푸'가 천연 원료와 10년 이상 연구가 담긴 기술력으로 매출 증가를 이루는 등 지속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1월 매출이 론칭 후 3개월간의 매출액 대비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브랜드들이 시도하지 않은 아침과 저녁을 차별화하는 제품 콘셉트가 공감을 얻었다는 분석이다. 아침 헤어케어를 위한 '데이 콜라겐 샴푸'는 드라이로 인한 모발 손상을 보호하는 등 모발케어에 초점을 맞췄다. '나이트 콜라겐 샴푸'는 저녁에 샴푸하는 사용자

위해 두피에 쌓인 먼지와 땀, 피지를 딥 클렌징으로 제거하고, 잠자는 동안 건조해지는 두피와 모발에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는 등 두피케어에 집중했다.

무엇보다 탈모 고민이 기존 중년에서 젊은층으로 확산되면서 기능성 중심 헤어케어 시장의 잠재력에 주목했고, 과거 남성이 주도했던 탈모 기능성 케어 시장에 여성의 유입이 늘고 있는 것에 착안해 2030 여성을 핵심 타겟으로 정한 것도 주요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황동희 트리셀 대표는 “2022년 헤어에센스 출시를 시작으로 헤어케어 업계에 강한 영향력을 펼칠 예정이다. 포트폴리오 강화 및 카테고리 확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상품으로 고객에게 다가갈 것”이라며 “디지털 마케팅을 강화하고, 고객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전개하는 등 고객과의 접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성과 있는 곳에 파격적인 보상 제공” CJ, 3개 계열사에 첫 특별 성과급



이재현 회장

CJ가 우수 실적을 낸 계열사 3곳에 특별 성과급을 지급했다.

CJ제일제당, CJ ENM, CJ올리브영에서 임원을 제외한 전 직원은 최근 특별 성과급을 받았다. 매년 성과에 따라 결정되는 정규 성과급과 별개로 연봉의 일정 퍼센트를 전 직원에게 일괄 지급한 것으로, CJ가 특별 성과급을 지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 계열사 3곳은 지난해 내부적으로 정한 목표를 뛰어넘는 실적을 달성해 특별 성과급을 받게 됐다. CJ제일제당, CJ올리브영이 연봉의 5%, CJ ENM은 3.3%의 특별 인센티브율이 적용됐다. 직급, 성과에 따라 연봉의 80% 수준까지 성과급으로 받는 사례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CJ가 이례적으로 특별 성과급을 지급한 것은 지난해 11월 이재현 CJ 회장이 발표한 ‘2023 중기비전’과 관련이 있다. 당시 이 회장은 “다양한 기회와 공정한 경쟁을 통해 타 기업에서 볼 수 없던 파격적 보상을 하고, 함께 성장할 일터로 만들겠다”며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은 인재다. 인재들이 와서 일하고 싶어하고, 함께 성장하는 CJ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회사 측은 “공정한 평가를 기반으로 확실한 성과가 있는 곳에 파격적으로 보상하는 것이 인사운영의 방향”이라며 “이번 특별 성과급은 일회성이 아니며, 향후에도 성과가 있는 경우에는 다양한 형태로 보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정정욱 기자

롯데온, 13일까지 '2월 퍼스트먼데이' 진행

롯데온이 13일까지 '2월 퍼스트먼데이'를 진행한다. 퍼스트먼데이는 롯데온에서 매월 첫째 주 월요일에 진행하는 정기 세일로, 이후 일주일간 애프터워킹을 진행해 퍼스트먼데이 수준의 할인 혜택을 이어간다. 최대 20% 할인 쿠폰 및 카드사별 최대 7%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 고객이 직접 특정 브랜드를 선택해 할인 받을 수 있는 '브랜드 픽' 혜택을 마련했다. 롯데온이 선정한 인기 브랜드 10여개 중 고객이 원하는 브랜드 3개를 선택해 추가로 최대 25% 할인 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건강 올레길 | 우리동네 주치의의 건강강

2022년 알아 두어야 할 치과보험 혜택 “어르신 임플란트·장애인 진료비 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외래 다빈도 질병 통계를 보면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 감기를 밀어내고 2019, 2020년 연속 환자 수 1위에 올랐다. 치아우식은 4위, 신경치료는 10위였다.

하지만 치과는 비싼 치료비 때문에 쉽게 방문하기 꺼려지는 곳이기도 하다. 따라서 2022년 새롭게 확대, 변화된 치아보험 혜택을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아동·청소년 충치치료인 실란트(치아 홈 메우기)와 광중합형 복합레진 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실란트는 만 18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은 충치가 없는 윗어금니 4개, 아랫어금니 4개에 본인부담금 10%로 치료받을 수 있다. 광중합형 복합레진은 만 12세 이하 아동의 영구치 충치에만 보험 적용이 가능하며 본인부담금 30%만 부담하면 된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자기부담금 30%로 임플란트 치료를 받거나 틀니를 제작할 수 있다. 임플란트는 만 65세 이상 1인 2개까지 보험이 적용되는데, 차이가 하나도 없는 완전 무치악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2022년부터는 장애인 치과진료 시 전신마취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일부 중증 장애인은 치과치료를 시 전신마취가 필요한데 일부가 비급여 항목이라 높은 비용을 부담해왔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뇌병변, 지적, 정신, 자폐성 장애인의 치과진료 전신마취 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으로 임신부 치과 진료가 가능하고 지원금 사용기간도 출산일 이후 2년으로 길어진다.

서울더플랜치과 문형욱 대표원장

HDC현산 '기사회생' 발판 마련...4200억 관양현대 재건축 수주

유 대표, 재건축 조합에 자필 사과문 미분양시 대물변제 등 파격 혜택 제시 서울 노원구 아파트 수주경쟁도 관심

시장 퇴출 압박을 받고 있는 HDC현대산업개발이 경기 안양시 관양동 관양현대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시공권을 획득했다. '죽을 각오로 뛰겠다'는 간절한 의지와 함께 다양한 '당근책'으로 조합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결과다.

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HDC현산은 하루 전 열린 관양현대아파트 재건축 조합 시공사 선정총회에서 조합원 959명 중 509명의 지지를 받아 시공자로 최종 선정됐다. 총사업비는 4200억 원.



HDC현대산업개발이 관양현대아파트에 제안한 '아이파크 더 크레스트' 조합도. 사진제공 | HDC현대산업개발

이번 사업의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오랜 기간 공을 들인 HDC현산은 수주를 확정했지만 지난 1월 전남 광주시 화정동 화정아이파크 사고로 신뢰를 잃으면서 위기에

처했다. 단지 내에 '보증금 돌려줄 테니 HDC현산은 제발 떠나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리는 등 수주 경쟁에서 밀리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HDC현산은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죽을 각오로 다시 뛰겠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붙이며 수주 의지를 재차 드러냈고, 유병규 대표는 1월 15일 재건축 조합에 진심을 담은 자필 사과문을 보내는 등 총력전을 펼쳤다.

이밖에도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통해 2조 원의 자금을 조달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200% 가량의 이주비 혜택을 주고, 분양가도 3.3m²당 4800만 원을 기준으로 미분양 발생시 대물변제를 통해 조합원들의 이익을 보장하기로 하는 등 파격적

인 혜택을 제시하며 조합원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HDC현산은 1월 붕괴 사고 이후 전국적으로 '아이파크 보이콧' 움직임이 커지면서 정비사업 시장에서 퇴출 위기에 몰렸지만 이번 수주로 기사회생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HDC현산은 이달 말 예정된 서울 노원구 월계동신아파트 재건축 사업에서 코오롱글로벌과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다. 창사 이래 최악의 상황에서도 연이어 신규 수주에 성공할지 관심이 쏠린다. 추후 정부의 영입금지 또는 면허취소 조치가 이뤄지더라도 이미 계약이 이뤄졌거나 착공한 현장의 공사는 계속 진행할 수 있다.

김도현 기자 dohony@donga.com